

광주,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부강한 도시'로

■ 국비 3조9497억 원이 열어젖힌 새로운 가능성과 교회의 공적 책임



1. 서론-불법계엄 1년, 국가가 보낸 새로운 메시지

2024년 12월 3일의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들었지만, 그 위기를 단호히 막아낸 시민적 감각의 중심에는 '광주'가 있었다. 1980년 5월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이 땅의 양심을 깨우는 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 후 1년, 중앙정부가 광주에 보내온 첫 번째 실질적 응답이 2026년 국비 예산 3조9497억 원이다. 전년 대비 5639억 원(16.6%) 증가, 정부 평균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수치는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다. 이는 광주의 국가적 위상 재평가,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국가적 약속이 첫 걸음을 떤 징표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은 이미지 정치나 일회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AI·민주·문화·SOC·미래차·국가문화시설·통합돌봄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 지원 기반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의회가 공식 제안한 무등산·ACC·양림동 권역 글로벌 관광타운 조성 사업의 연구용역비(4억 원)가 반영된 사실은 광주 교회가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다.

2. 광주 국비 3조9497억 원의 의

미- '빛의 혁명'과 '부강한 광주'의 원년

2026년 국비 예산의 구성은 두 개의 기둥으로 요약된다.

(1) '빛의 혁명'-민주·인권 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광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그 정체성을 공간과 제도에 담아 후대에 전승하려는 본격적 시도다.

▶ 5·18 구묘역 민주공원 조성(7.1억)

(2) '부강한 광주'-AI·반도체·모빌리티의 초격차 전략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이번 예산의 핵심이다.

▶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비(6억)

국가AI컴퓨팅센터가 해남으로 간 대신, 광주는 자전력·고효율 차세대 AI반도체(NPU) 집적 거점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광주는 AI 모델의 '실증·서비스·산업화', 해남은 '초거대 모델 학습'

▶ GIST AI 영재학교 건립비·운영비(31.4억)

AI 인재 육성·산업과 교육 생태계의 결합.

▶ 국가 AIDE이터센터 고도화(192억)

광주의 기존 AI 기반을 확장해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투자다.

결국 'AI 중심도시 광주'는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이 되었다.

이해하는 핵심 코드다.

(2) ACC-아시아민주·문화 플랫폼 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인권·예술·교육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실험 도시 기반이다.

(3) 무등산-UNESCO 생지형 보호구역, 광주의 생태 영성 근대·민주·생태가 연결되는 도시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합이다.

(4) 글로벌 관광타운의 의미 이 세 권역을 하나의 마스터플랜으

아니라, 정책이 성과를 낼수록 광주 시민의 삶은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예산·정책·인프라가 결합된 구조적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 광주가 지금 '두 번째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의 출판기념회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번 국비 결과와 도시 비전이 실제로 맞물린다는 점에서 정책적 설득력을 갖는다.

5. 기독교의 공적 책임-광주를 살리고, 광주와 함께 걷는 교회

광주 교회는 지난 100년간 교육·의료·아동보호·노인돌봄·사회운동 등 가장 약한 이들의 곁을 지켜온 지역의 버팀목이었다.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

(1) 민주주의 영성의 재해석

5·18 정신과 성경의 정의·자비·회복의 가치를 연결하는 신학적 작업.

(2) 돌봄 민주주의와 교회의 역할 광주다움 통합돌봄, 심아여린이병원 등은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돌봄의 길을 열고 있다.

(3) 양림동 선교유산의 재발견

선교 유산을 현대적 언어로 해석해 교육·문화·관광·청년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

(4) 생태·평화·문화 선교의 확장

무등산·ACC·양림동 프로젝트는 광주 교회의 공공신학적 실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다.

6. 결론-광주는 늘 옳았다, 그리고 다음 10년이 시작된다

광주는 1980년에 대한민국을 한 번 구했다. 2024년에도 한 번 더 구했다. 그리고 지금, 국비 3조9497억 원으로 한국의 미래 도시전략을 다시 쓰고 있다. 광주의 두 번째 등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에서 AI·문화·생태가 결합된 초격차 미래도시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광주 교회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다. "광주는 늘 옳았다." 이 명제는 이제, 광주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내는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글=이복행 목사(본지 편집위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국가적 약속 첫걸음 떤 것 AI·민주·문화·SOC·미래차·통합 돌봄 등 전분야 구조적 기반 조성

광고협 공식 제안 '양림동 권역 개발' 조성사업 연구 용역 반영 큰 의미

→ K-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적 교육장으로 발전

▶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미래세대관 조성(4.4억)

→ 항쟁의 생명과 연대의 역사를 재구성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소홀했던 투자가 현실화되며 광주는 '민주·인권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라는 투트랙 구조가 형성되었다.

▶ AX 실증밸리-정부 240억 + 국회 56억 증액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도시문제를 AI로 전환하는 '미래도시 AX 모델'의 실험장이 광주에서 본격 시작된다.

▶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실현 용역비(5억)

혁신 기업이 광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3) 미래차·모빌리티·문화·SOC 전 분야 확장

AI 모빌리티 시범도시(617억), 미래 순환경제 및 기능안전 인프라(26억), 3대 국가문화시설(현대미술관·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사전타당성조사(16.5억), 도시철도 2호선 추가 반영(100억), 광주~강진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SOC 확대 등 이 모든 구조적 투자는 광주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3. 교계가 제안한 '무등-ACC-양림동 글로벌 관광타운'-왜 중요한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의회는 광주 발전의 비전을 단순한 종교 의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전략으로 제안해왔다. 이번에 국비 4억 원이 연구용역비로 반영되면서 이 사업은 드디어 공적 논의 테이블에 올라섰다.

(1) 양림동-근대와 신앙, 선교 유산의 보고

양림동 선교사 묘원, 우월순·최홍종의 기독교 사회운동, 근대문화 건축물과 마을 공동체 정신은 광주를

로 묶게 되면, 광주는 다음의 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게 된다.

▶ 근대화: 양림동의 역사·선교·건축

▶ 평화·민주: ACC의 인권·문화 플랫폼

▶ 생태: 무등산의 자연·치유·트레일

▶ 신앙·공공성: 기독교 사회운동의 유산

이 모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광주의 정체성과 미래 산업을 결합하는 도시 전략이다.

특히, 교계가 제안한 이 사업이 공적 예산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광주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정책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강기정 시장의 '원숙한 반등'-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

여론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강기정 시장은 AI 예산, 복합쇼핑몰, 군공화 이전 협상, 도시철도 2호선 공정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그의 반등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선 여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가 해남으로 간 대신, 광주는 국가NPU전용 컴퓨팅센터 집적 거점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광주기독교백화점

호남 최대 기독교용품 전문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기독교백화점

메리크리스마스, 위드 지저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주기독교백화점 대표 한영환 장로

- 각 교단 공과 및 구역공과 각종 장부 및 봉투
- 연말 시상품 다량 준비완료 다이어리, 전자성경

※ 네비에서 순복음백성교회를 찍고 오십시오,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광주기독교백화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95번길 14(마북동 171-5) TEL.062)227-3997 / 010-3648-3997